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공지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4(통30). 주 우리 하나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호흡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지방선거를 마치고 뒤숭숭해진 이 사회를 살피주십시오. 이제는 갈등과 반목의 길을 버리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상생과 공생의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지배와 군림의 길이 아닌 섬김과 봉사의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살맛나는 세상을 열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62:4	인도자
♠ 교 독 문 103.나라사랑(5)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이승철 학생 II.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18(통369).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함께
성경봉독	I. 왕상19:1-12 전수정 학생
	II. 창29:31-35 유건형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고요 속의 기다림 김재홍 목사
	II. 레아와 라헬 김기석 목사
거뭇기도	다함께

- 특 송 새교우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이들의 신음소리를 찬양소리로 바꾸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절망스런 현실 앞에서 주님을 무능하다 탓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선부른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던 믿음의 심지를 더욱 굳건히 세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3남, 5여선교회 주관 예배	히브리서 / 이성운 전도사
말씀 : 김기석 목사	기도 : 정원석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서현 선생	박민선 학생
	양재성 목사	조병무 장로	조항미 집사

6월	영접위원	윤석철 박범희 박규석 박미영 권미숙 임영선
	헌금위원	김인걸 박혜경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동물도 죽음을 애도한다

6월 6일은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주검 앞에 우리 모두 머리 숙이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날이다. 어느 문화권이든 인간은 모두 나름대로 독특한 장례문화가 있다. 우리 무속신앙에도 망자의 혼을 달래는 다양한 의식들이 전한다. 전라도 지방의 씻김굿이 그 대표적인 예다.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철학이 생겼고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가 탄생했다. 어느 문화권이든 종교는 거의 한결같이 영생을 얘기한다. 종교에 따라 영생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해도 그들은 모두 우리의 유한한 생명의 대안으로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원죄를 인정하고 조물주 하느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불교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 연결되어 있고 모습을 바꾸며 윤회한다고 믿는다.

동물들도 과연 죽음을 인식하고 슬퍼할까? 일찍이 철학자 윌리엄 어네스트 호킹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죽음이 과연 모든 것의 종말인지를 의심할 줄 안다”고 했다. 그러나 제인 구달 박사는 어미의 주검 곁을 떠나지 못하고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지나다 끝내 숨을 거둔 어린 침팬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어린 자식의 축 늘어진 시체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품에 안고 다니는 침팬지 어미들을 발견하는 일 또한 그리 어렵지 않다.

네덜란드의 아르헬름 동물원은 오래 전부터 침팬지 군락을 보호하고 있다. 침팬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수로로 둘러싸여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바로 그곳이 지금은 미국 에머리 대학의 교수이자 <정치하는 원숭이>의 저자 프란스 드발 박사가 연구하던 곳이다.

드발은 그곳에서 ‘고릴라’라는 이름의 암컷 침팬지가 여러 차례 갓 낳은 아기를 잃고 몇 주씩이나 다른 침팬지들을 멀리하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관찰했다. 정식으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본 것은 아니지만 거의 틀림없이 우울증에 빠진 침팬지였다. 동물원 관리인들이 조심스레 안겨준 10주쯤 된 어린 침팬지를 양녀로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고릴라’는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을 수 있었다.

코끼리들은 다른 동물들의 뼈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코끼리의 뼈를 발견할 때면 언제나 그들의 긴 코로 뼈 냄새를 맡으며, 뼈를 이리저리 굴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들고 다니기도 한다. 코끼리들이 그들의 뼈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큰가 하면, 야생동물 사진작가들이 그 모습을 찍으려 할 때 그들이 다니는 길목에 코끼리 뼈 하나를 놓아둔다는 것이다. 코끼리들은 늘 신선한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며 살지만,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도 자기 어머니의 두개골이 놓여 있는 곳을 늘 잊지 않고 들러 한참 동안 그 뼈를 굴리며 시간을 보낸다.

나도 야외연구로 동해안을 지날 적이면 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 할아버지 산소를 찾는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 근방을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뼈가 묻힌 그곳을 둘러보지 않으면 왠지 발길이 가법질 않다. 얼마 전 영동지방에 큰 산불이 났을 때도 할아버지의 산소는 신기하게도 불길이 피해갔다.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무척이나 뜨거워하셨을 것이다.

죽음은 생명의 원천이다.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한 생명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또다른 생명이 채운다는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아무도 죽지 않고 영생하기 시작하면 곧 모두가 죽고 만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의 번식력은 실로 가공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태어나는 많은 개체들 중 대부분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 중 일부만이 번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구 생태계가 균형 있게 유지되는 것이다.

4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한 천재적인 생태학자 맥아더는 1분에 한 번씩 분열하며 성장하는 박테리아를 두고 다음과 같은 가상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다. “만일 일단 태어난 박테리아 중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불과 36시간 만에 박테리아는 우리들 종아리 높이만큼 온 지구의 표면을 덮을 것이다. 그로부터 한 시간 후면 우리 키를 넘길 것이고, 천 년쯤 지나면 지구는 저 우주를 향해 빛의 속도로 팽창해나갈 것이다.”

죽음 그 자체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는 유전자의 관점으로 설명하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다. 이미 죽은 자는 더 이상 유전자를 후세에 전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을 애석해하는 그 애뜻한 감정은 유전자에게 과연 무슨 도움을 주었기에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는가?

달빛 가난

김재진

지붕 위에도 담 위에도
널어놓고 거뒤틀리지 않은 멍석 위의
빨간 고추 위로도 달빛이 쏟아져 흥건하지만
아무도 길 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달님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나요?'
'잠이 안 와서 그런 거지.'
'잠도 안 자고 그럼 우린 어디로 가요?'
'물지 말고 그냥 발길 따라만 가면 된다.'
공동묘지를 지나면서도 무섭지 않았던 건
아버지의 놀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림자가 내 그림자보다 더 커요.'
'근심이 크면 그림자도 큰 법이지.'
그날 밤 아버지가 지고 오던 궁핍과 달리
마을을 빠져 나오며 나는
조금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장영숙 김철수 유영남 방문성 박혜경 한상익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곽상준 최경미 김신욱 김일랑 이은옥 김중수
 이순정 문복순 최현선 방민 배근수 김금순 손성현 안정숙 오진훈
 노순옥 방준 박시내 홍복선 정재정 정한구 왕영순 조병무 송양진
 김종락 박영신 김혜영 전해리 김지호 이건식 신영신 무명

월정헌금:

김남중 오복순 안길상 이형숙 왕수명 윤성중 김윤정 이동천 장재영
 김재영 전영규 김경수 정현숙 박상규 이증자 김창경 김현주 노우중
 우주현 이은정 권순 김지윤 장석원 조병주 김수진 류건형 이주은
 최재욱 이수정 한정애 정연희 박범희 박미영 무명3

감사헌금:

김대근 최종미 김중수 이순정 배삼순 권호진 박홍재 김은정 최숙화
 김정길 권혁순 박혜경 김혜영 강순배 김종락 박영신 황경순 홍순구
 안홍숙 김남중 오복순 임미심 무명1

녹색꿈헌금: 박옥식

생일헌금: 허성호 김지호 이건화 조순덕 이나라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박성실	박영희
베들레헬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서정순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이은옥	정복순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신영신	김명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조병주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경수	오정숙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정선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최희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강순배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안홍숙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정영선	최현옥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방극숙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최영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평신도 주일** :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늘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2. **선교회주관예배** : 오늘 오후집회는 3남·5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3. **교사교육** : 2분기 교사교육이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 **수요집회** : 6월 수요집회는 이성운 전도사가 히브리서를 강의합니다.
5. **청파산악회** : 12일(토) 과천대공원 둘레길을 걷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대공원 분수대에서 모입니다.
6. **기증 받습니다** : 다음 주일, 환경선교주일을 맞아 초록가게에서 장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나, 의류, 완구류 등을 기증 받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수양회 설문조사** : 2010년 여름 전교인 수양회(주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를 위한 설문을 조사합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8. **신앙실천** : 쉽게 남을 탓하는 버릇을 버리십시오.

* 떡 대접 : 허강린 백일

* 식당 봉사 : 엠마오 속 (다음 주 : 에베소 속)

* 설거지 봉사 : 정희은 박시내 곽상준 (다음 주 : 정희은 김기성 윤석철)

* 새교우 : 한상경(6여) 박상준(5남)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4. 휴대 전화는 예배 시작 전에 끕니다.
5. 음식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